

“도박에 빠진 아들 때문에 보금자리를 잃었습니다.”

-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충격으로 병에 걸린 강용회(가명) 어르신 이야기.

강용회(가명) 어르신은 넉넉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아내와 함께 남매를 키우고, 개미처럼 일을 하며 10년 전 마침내 평생 꿈이었던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그간 아이들도 장성해서 이제는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한동안 행복감에 들뜨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평안했던 가정은
아들의 사업실패와 도박중독으로 순식간에 부숩져 버렸습니다.

아들의 사업을 위해 담보로 잡혔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채 빚까지 떠안게 되면서 아내는 그 충격으로 뇌졸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강용회 어르신도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과 급성신부전증이 생겼습니다.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은 홀로 쪽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몸과 마음의 병으로부터 해방되어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강용회 어르신의 생계비로 지원되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사용됩니다.

후원문의 : ☎ 02-3396-1004